

# 초유의 '無 조사 구속영장'...공수처-손준성, 한쪽은 '치명타'

**손준성 "영장 청구 부당함 소명하겠다"**  
**공수처, '체포영장 재청구 무의미' 판단**  
**심사 결과 따라 한쪽은 '치명타' 불가피**  
**성상욱 검사 조사...김용 소환일정 조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진행됐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반면,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가 야당 대선 경선이라는 정치적 고려

로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피의자 조사 한번 거치지 않고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이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공수처 수사차량을 타고 이날 오전 10시2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손 전 정책관은 취재진에게 "영장 청구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소명하겠다"는 말만 하고는 법원으로 들

어갔다.

이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 영장 청구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삼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손 전 정책관 변호인은 전날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피의자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할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소환조사 일정 조율이 계속 늦춰진 것은 '공수처의 시퍼런 칼날'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자신은 '출석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것이다.

손 전 정책관 측은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판단 기준인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공수처 수사팀이 피의자 소환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강

제수사를 언급하는 등 일종의 '갑박 문자'를 보낸 점, 구속영장을 지난 23일 청구하고는 이 사실을 이를 뒤에 알린 점 등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부터 14~15일께 소환조사를 진행하자고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19일까지 거듭된 출석 일정 협의에서도 비협조적이었기에 이는 '방어권 행사'가 아닌 '수사 회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자 신분이던 김용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조성은 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보낸 고발장 사진 파일에 적힌 '손준성 보냄'의 당사자인 점, 압수물 분석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 등도 고려됐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 법원이 피

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는데, 같은달 22일에도 소환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되자 체포영장 재청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공수처와 손 전 정책관 측 모두 피의자 소환 조사가 지연된 원인을 상대 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한쪽은 충격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검찰의 조직적 관여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윤 전 총장까지 겨냥 동력을 얻게 된다. 조사도 한번 하지 않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의 시선에서도 그 만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손 전 정책관, 윤 전 총장 등이 사건의 입건돼 있는 이들은 궁지에 놓이게 될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로 야권 대선 주자를 겨냥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다. 이날 구속영장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든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2개월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뿐만 아니라 주요 사건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손 전 정책관과 대검에서 함께 근무했던 성상욱 수사정보2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보다 앞서 임홍석 대검 검찰연구관도 조사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의원의 피의자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달 내에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슬비 기자



**장애물 통과하는 119구조견** 26일 오후 대구 달성군 구지면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열린 '제11회 소방청장배 전국119구조견 경진대회'에서 핸들러와 구조견이 장애물을 통과하고 있다.

## 술자리서 여성 MC 마구 때린 건설업자, 불구속 송치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검찰 "도주 우려 없다" 반려

술자리에 동석한 광주 지역 행사진행자(MC)를 무차별 폭행한 건설업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여성 MC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건설업자 A(56)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께 광주 동구 모 술집에서 40대 여성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B씨와 대화 중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의자에 앉아있는 B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렸고 바닥에 쓰러진 B씨에게 발길질을 했다. 이후에도 2차례나 술집 안팎을 오가며 B씨를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술자리에는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 C경감·지역 정가 관계자가

동석했는데 이들은 소극적으로 A씨를 만류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공무원 중은 아니었지만 범죄를 엄단·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인 C경감이 책무를 지버렸다는 비판이 일면서 광주경찰청이 감찰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범죄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직업이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최이슬 기자

## 목포 제빙공장서 철거 구조물에 맞은 50대 신호수 중상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26일 오전 10시 15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부둣가 제빙공장 철거작업 현장에서 교통 통제를 하던 50대 남성 A씨가 떨어진 구조물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음을 운반하는 방동 탐 철거작업 도중 일부 구조물이 1층으로 떨어지면서 A씨가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 수칙 위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박종영 기자

## "헤어져"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귀금속 훔친 60대 구속

열쇠수리공 숙여 여자친구 집 침입 뒤 범행

헤어지자는 이유로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다치게 한 혐의(주거침입절도·폭행치상)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광주 남구 여자친구 B(56)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900만 원 상당의 목걸이·팔찌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B씨와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벌이다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다음 날 훔친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동취재본부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